

아라비아반도 NEWSLETTER

기도 포커스, 걸프 국가의 아동 청소년 실태와 학습 관련

중동 걸프 국가들 사이에 경제, 문화적 큰 차이가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이웃 국가라고 해도 다른 언어와 문화가 있는 것과 같이 이들 중동 걸프 국가들도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걸프 국가 중에서 가장 잘 발달된 석유 부국으로 알려진 곳의 아동·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한다. 중동지역 문화상 공개되기를 꺼릴 수 있는 이야기로 국가명을 밝히지 않음을 독자분들이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



부국으로 소문난 곳에서 시민권자로 태어난다면 국가로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다. 가족이 많으면 더 큰 집을 받을 수 있고, 가정의 월 소득이 860만 원이 안 된다면 저소득 가정으로

분류되어 월 수백만 원의 지원금도 받는다. 유학을 원하면 본인과 배우자의 학비, 숙소,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학위를 받지 못하고 돌아오면 다른 나라로 다시 보내주는 나라가 있다. 연봉이 얼마든지 소득세가 0%이고, 1억 이상의 8기통 SUV가 국민차같이 사용되는 곳, 관광객들에게는 화려한 곳, 외국 근로자들에게는 돈을 벌어 갈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는 곳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지만 현지 기독교인이 집계되지 않고 현지 교회가 단 한 곳도 없는 안타까운 곳이다.

이런 나라에서 아동·청소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먼저 가정을 보면 이슬람법에 따라 남자에게 배우자는 4명까지 허용된다. 보통 첫째 부인은 현지인 그리고 이후 부인(들)은 외국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환경에서 어찌 가정이 화목하고 남편이 각각 가정에 충실할 수 있을까? 그럼 부인들은 가정에 충실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보통 유모들에 의해서 길러진다. 좋은 유모들도 많겠지만, 저임금을 받고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경우들이 많고 영혼 없는 표정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된다. 아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초콜릿을 많이 먹고 태블릿 디바이스와 친숙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의 학습 부진이라는 부작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입에 단 음식이 좋고, 자극적인 화면에 노출된 아이들이 연필을 잡고 책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또한, 중동 문화상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해 상담을 하기보다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교육기관에서는 아이들을 클리닉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아이들에게 신경 정신적 질환이 있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부유함 속에 결핍이 가정의 약자인 아이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다. 국가에서는 교육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풍요 속에서 지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이곳의 교육은 국제학교가 일반적이다. 외국인의 비중이 약 85%이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의 커리큘럼을 이곳에서 볼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학교들은 전통 있는 영국 사립학교의 분교들이다. 왕가의 자녀들은 보통 이런 학교에 진학한다. 영국식 교육에서는 만3세에 유치원(FS) 과정으로 학교 교육을 시작하고, 입학 시험에 합격해야 입학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유치원에 들어갈 때, 책가방을 사주는 문화가 있다면, 이들은 어린 말을 사준다. 아이가 자라면서 어린 말도 같이 자라며 아이가 승마를 배울 나이가 되면 그 아이의 말을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국 학생이 방과 후 수업으로 승마를 배우는데, 매주 다른 말을 타게 되었다고 한다.

현지인 아이들이 보기에는 본인들은 말이 한 마리씩 있어서 매주 같은 말을 타는데, 한국 학생은 말을 몇 마리를 가지고 있길래 매주 다른 말을 타는지 한국 학생에게 물어봤다고 한다. 물론 그 학생은 말이 없어서 빌려 타기에 매주 다른 말을 탈 수밖에 없었다. 현지인 중에는 외국학교나 국제학교에서 자신의 아이가 뒤처질 것을 염려하여 현지 학교를 보내는 경우들이 있다. 현지 학교는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이라서 외국인들은 입학할 수 없다. 공립학교도 교사들은 대부분 외국인이다. 현지 학교에서는 시민권자인 학생들이 외국인 교사들에 의해 대우받으면서 매우 후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한다. 그리고 대학에 와서 학점이 안 나오면 교수를 불러 자신에 성적에 대해 항의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장점은 강한 자신감이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곳은 돈 많은 졸부의 국가가 아니다. 석유가 발견되고 나서 나라가 불안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곳이 석유를 통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도자들이 교육과 나라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석유가 없어진다고 해서 수입이 끊어지지 않는다. 전 세계 금융 상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미래를 위해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고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풍요 속의 사랑과 관심의 결핍으로 인한 어려움이 감추어져 있다. 이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결핍을 메움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 아동·청소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이곳에 올 수 있게 하소서.
-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현지인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